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인식수준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박지연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Effect of College Students Knowledge on the Elderly and Recognition of Retirement on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Jeeyeo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s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노후인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준비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노후인식 및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B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및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노후인식 및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후준비와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노인에 대한 지식($\beta=0.21, p=.012$), 남성인 경우($\beta=0.28, p=.001$), 노후인식수준($\beta=0.23, p=.005$) 순이었으며, 이들 영향요인은 대상자의 노후준비 정도를 1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14, p<.001$).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노후준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중재안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 노후인식, 노인에 대한 지식, 노후준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mpact of level of awareness about old age, knowledge of the elderly and preparing for later life on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study was composed of 133 students who were studying in 4-year system at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st to November 31st, 2019. Data analysis included a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9.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preparing for later life included knowledge of the elderly ($\beta = 0.21, p = .012$), men ($\beta = 0.28, p = .001$), and level of awareness about old age ($\beta = 0.23, p = .005$), and the accounting power of these factors was 18% in total ($F=9.14, p<.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later life and gend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planning for intervention.

Key Words : Elderly, Awareness about old age, Knowledge of the elderly, Preparing for later life,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RF-2019R1G1A1003708).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R1G1A1003708)

*Corresponding Author : Jeeyeon Park(jypark115@ks.ac.kr)

Received December 16,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22,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현 시대가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이슈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일 것이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 삶의 질과도 직접적, 간접적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1].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노화과정과 노후 준비,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 등 사회전반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시대의 대학생이 사회의 가장 주축이 되는 구성원인 중장년층이 되는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그것에 따른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세대가 된다[2,3]. 따라서 대학생들이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사회는 고령화와 더불어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통적 가치 규범이 와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하여 세대간 정서적 단절이 심화되어 젊은 세대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노화과정이나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노인이 단순히 노화가 진행된 고령자라는 이미지 외에 사회의 발전에 있어 현재 노인세대가 기여한 바와 가족 내에서 조부모에 대한 전통적 효의 가치도 물려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문헌들은 젊은 세대가 가지는 노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양 부담 등을 보고하였으며 [2,3], 이러한 현상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행문헌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을 연구하였으며 [3-5] 노후준비와 함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의 사회에 대비한 미래의 노년을 준비하는 세대로서는 실질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 준비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평균 수명이 길어진 현 청년 세대는 질 높은

노년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준비를 인지하고 시작해야 하며 그러한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사회는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노후인식 수준과 노후 준비 등에 대한 지식과 계획 등을 대학생 시기부터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생주기에 있어 사회적 첫 걸음을 딛는 대학생 시기에 노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미래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함께 직면하여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후인식수준,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까지 B시 4년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 power 3.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하기 위하여 중간정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조건에서 본 연구에 최소 123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135명을 모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을 제외한 13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인식 실태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동거인, 종교 및 건강수준을 조사하였고, 노인

인식실태에 대한 조사로 노후준비의 시점, 노인 부양의 책임, 향후 부모님과 동거선호 유무 및 노인관련 과목 수강 경험을 조사하였다.

2.3.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 (1998)이 개발한 Fact On Aging Quiz (FAQ1)을 Lee[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신체적 영역(11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및 사회적 영역(8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설문문의 문항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를 표시한다. 문항별 정답은 1점으로,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62였고,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2.3.3 노후인식수준

노후인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an[7]의 도구를 Lee[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년기인생참여, 인간관계, 심리적 적응, 경제적 인식, 학습, 재산, 자식에 대한 집착, 독립, 삶의 만족도, 보조기 이용, 부부관계, 복지제도 및 목적의식에 대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Lee[8]의 연구에서 Cronbach’s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4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Kim[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신체적(9문항), 경제적(6문항), 사회적(3문항), 심리·정서적(6문항), 여가적(7문항) 노후준비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34점에서 최고 1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Kim[9]의 연구에서 Cronbach’s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서 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대상자는 연구 시작 후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 철회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연구자는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작성 직후 밀봉된 봉투에 넣어 회수하는 등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후인식 실태 항목은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노후인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준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후인식 실태에 따른 노후준비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노후인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준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후인식 실태

Table 1과 같이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21.8% (29명), 여자는 78.2% (104명) 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28.6%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인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67.7% (90명)로, 종교는 ‘없는 경우’가 71.4% (95명)로 가장 많았다. 건강수준은 ‘ 좋음’이 42.1% (56명), ‘보통’이 28.6% (38명), ‘매우 좋음’이 27.1% (36명), ‘나쁨’이 2.3%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시점은 ‘30대’가 47.4% (63명)로 가장 많았고,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51.1% (68명)로 가장 많았다. 노인의 부양책임은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50.4% (67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 (63명),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3% (3명) 순이었다. 향후 부모와의 동거 선호 여부는 ‘예’ 응답이 67.7% (90명)이

있고, 노인관련 과목에 대한 수강경험은 '수강경험 있음'이 57.1% (76명)이었고, '수강경험 없음'이 42.9% (57명)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tirement situation awareness in subjects (N=13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9 (21.8)
	Female	104 (78.2)
Grades	2	38 (28.6)
	3	56 (42.1)
	4	29 (29.3)
Housemate	Grand parents	9 (6.8)
	Parents	90 (67.7)
	Alone	34 (25.6)
Religion	Yes	38 (28.6)
	No	95 (71.4)
Health status	Very good	36 (27.1)
	Good	56 (42.1)
	Fair	38 (28.6)
	Poor	3 (2.3)
Retirement preparation time	20's	22 (16.5)
	30's	63 (47.4)
	40's	39 (29.3)
	50's ≤	9(6.8)
Problem of retirement	Health	54 (40.6)
	Economic	68 (51.1)
	Social	11 (8.3)
Responsibilities of support	Within family	63 (47.4)
	Family+country	67 (50.4)
	Country	3 (2.3)
Whether the parents are living together	Yes	90 (67.7)
	No	43 (32.3)
Elderly related subjects taking experience	Yes	76 (57.1)
	No	57 (42.9)

3.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후인식수준 및 노후준비 정도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최저점은 0, 최고점이 18로 11.07±2.66이었고, 노후인식수준의 정도는 최저점이 39, 최고점이 65로 54.84±5.69였다. 대상자의 노후준비 정도는 최저점이 77, 최고점이 158로 111.69±13.81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Family Strength, Flow and Mental health (N=133)

Variables	M±SD	Min	Max
Knowledge of the elderly	11.07±2.66	0	18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old age	54.84±5.69	39	65
Preparing for later life	111.69±13.81	77	15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후인식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후인식상태에 따른 노후준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고($t=.287, p=.005$), 학년은 사후분석 결과 4학년보다 2학년인 경우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다($F=3.20, p=.044$).

Table 3. Differences in Preparing for later lif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33)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Gender	Male	118.03±12.68	.287* (.005)
	Female	109.93±13.66	
Grades	2 ^a	111.47±13.12	3.20* (.044)
	3 ^b	114.73±13.61	
	4 ^c	107.56±14.01	a)c
Housemate	Grand parents	106.00±12.42	0.98 (.375)
	Parents	112.56±14.44	
	Alone	110.94±12.36	
Religion	Yes	112.89±13.50	0.63 (.530)
	No	111.22±13.98	
Health status	Very good	116.42±12.33	2.06 (.109)
	Good	110.17±14.64	
	Fair	109.34±13.4	
	Poor	113.33±18.04	
Retirement preparation time	20's	115.18±11.68	2.53 (.060)
	30's	112.74±13.94	
	40's	110.48±14.55	
	50's ≤	101.11±10.21	
Problem of retirement	Health	111.94±14.84	0.14 (.873)
	Economic	111.22±13.90	
	Social	113.45±7.28	
Responsibilities of support	Within family	111.89±12.53	0.36 (.700)
	Family+country	111.82±14.62	
	Country	105.00±24.76	
Whether the parents are living together	Yes	111.88±13.51	0.25 (.830)
	No	111.33±14.59	
elderly related subjects taking experience	Yes	111.19±13.58	-0.48 (.630)
	No	112.37±14.21	

3.4 노인에 대한 지식, 노후인식수준 및 노후준비 정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준비 정도는 양의 상관관계 ($r=.247, p=.004$)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노후인식수준과 노후준비 정도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38, p=.006$).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Research Variables
(N=133)

Variables	(1)	(2)	(3)
(1) Knowledge of the elderly	1		
(2)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old age	.206 [*]	1	
(3) Preparing for later life	.247 [*]	.238 [*]	1
	.004	.006	

3.5 대상자의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5 같이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지식, 노후인식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서 노후준비에 차이를 나타냈던 성별 및 학년을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적 선행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지식($\beta=0.21, p=.012$), 남성인 경우($\beta=0.28, p=.001$), 노후인식수준($\beta=0.2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향요인은 대상자의 노후준비 정도를 1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14, p<.001$).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Preparing for later life
(N=133)

Variables	B	SE	β	t	p
Knowledge of the elderly	1.08	0.42	0.21	2.55	.012 [*]
Gender [§]	9.39	2.69	0.28	3.49	.001 [*]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old age	0.57	0.20	0.23	2.83	.005 [*]
$R^2=.175, F=9.14, p<.001$					

§: Dummy Variables of Gender (reference: female)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후인식수준,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준비 정도를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각 변수들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지식, 남성인 경우, 노후 인식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후 준비 시점이 '30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노인의 부양책임은 가족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현 시대의 대학생의 노후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Kim[9]의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여 대학생의 보편화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 노후인식 수준, 노후준비의 수준도 선행연구 [7-9]보다 높게 나타나 점차적으로 노인에 대한 교육제공 및 홍보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학생들의 인지 및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인식 수준은 모두 노후준비 정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10-12]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후인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문헌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노인과의 접촉 경험, 노인 관련 교과목 수강 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 관련 자원봉사 등이 독려되며 그 결과로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 또한 노인 관련 교육을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보건관련 학과들의 교과목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노인 관련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향상된 연구결과[11,14]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미래의 문제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제공될 수 있다.

노후준비 정도의 영향요인은 노인에 대한 지식, 남성인 경우, 노후인식수준 순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관관계에서 나타났듯 지식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 노후 준비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에 의지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상 남성이 그 부담감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으로[1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지식 및 노후 인식은 단편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보다 대학생의 특성을 살려 노인 관련 교육과정을 자원 봉사 형태라던지, 서비스학습(Service learning)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15]. 서비스학습은 노인과 청년층 간의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대학생들도 이런 활동 및 학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드러나 있다[14-18].

현재까지의 시대 변화로 볼 때 대학생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 사회는 훨씬 급변할 것이라 생각된다. 길어지는 평균수명으로 중장년층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청년층의 노후 준비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시대이며[19-22]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보며, 개인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노후 준비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후준비를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상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 성별, 노후인식 수준 순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에, 노후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노후준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평등화된 시대에 맞추어 성별에 차이 없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시 소재의 대학에서 자료수집 하였으므로 모든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어떤 사회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해 볼 것을 제언하며 노후준비 서비스 혹은 노후준비의 체계적인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W. Kim. (2011). A study on the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1(3), 505-526.
- [2] H. J. Jeon & K. J.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 program for the frilled aged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aged and the awareness of supporting on the aged.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179-207. DOI : 10.21194/kjgsw.72.1.201703.179
- [3] M. S. Lee & S. N. Yang. (2012).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265-273. DOI : 10.14400/JDPM.2012.10.8.265
- [4] Y. S. Choi, E. J. Choi & E. J. Moon. (2015).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older generation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5), 228-241. DOI :10.5392/JKCA.2015.15.05.228
- [5] W. Kim. (2014).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n anxiety about ag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421-442.
- [6] Y. M. Lee. (2003). *A study on welfare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7] M. R. Han. (2009).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nurses about the preparation and successful life for old ag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8] M. S. Lee. (2012).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plan of retirement in nurse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9] J. N. Kim. (2015).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Social, and Family Background Factors upon Preparing for Later Life : by Mediator Variable of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Old Age*.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ngbuk.
- [10] J. M. Lee & S. Y. Lee. (2005). The impact of education of gerontolog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9, 259-283.
- [11] J. S. Kang, J. D. Yoo & Y. Y. Kim. (2009).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3), 851-865.
- [12] S. H. Lee. (2014).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 Nursing*, 16(1), 18-26.
- [13] E. S. Choi, J. E. Moon, H. Y. Lee & D. W. Han. (2012).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in the voluntary service for the elderly on the cognition about the elderly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3), 1467-1477.

- [14] S. Y. Kim, T. H. Sohn, S. J. Jang & K. J. Moon.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1)*, 53-84.
DOI: 10.21194/kjgsw.71.1.201603.53
- [15] S. H. Kwon, H. J. Kang, S. C. Youn & Y. S Kim. (2016). The convergent influence of knowledge,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303-314.
DOI : 10.14400/JDC.2016.14.4.303
- [16] J. L. Knapp & P. Stubblefield. (2000). Changing Students' Perceptions of Aging :The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Service Learning Course. *Educational Gerontology, 26*, 661-621.
- [17] B. Luo, K. Zhou, E. J. Jin, A. Newman & J. Liang. (2013). Ageism among College Student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S and China.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8*, 49-63.
- [18] R. I. Hwang & I. A. Kim. (2019). Long-term care employment intention of elderly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8)*, 401-409.
DOI : 10.15207/JKCS.2019.10.6.401
- [19] H. J. Kim & Y. S. Lee. (2019). A study on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retirement preparation of millennial generation. *Journal of KSSSS, 46*, 27-50.
DOI : 10.18346/KSSSS.46.2
- [20] C. J. Chang. (2019).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elderly's successful aging : Group comparison by household types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 257-264.
DOI : 10.15207/JKCS.2019.10.1.257
- [21] C. J. Chang. (2017). Structural relationship of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05-310.
DOI : 10.15207/JKCS.2017.8.10.305
- [22] M. S. Lee & S. N. Yang. (2012).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265-273.

박 지 연(Jeeyeon Park)

[정회원]



- 2015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현재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 E-Mail : jypark115@ks.ac.kr